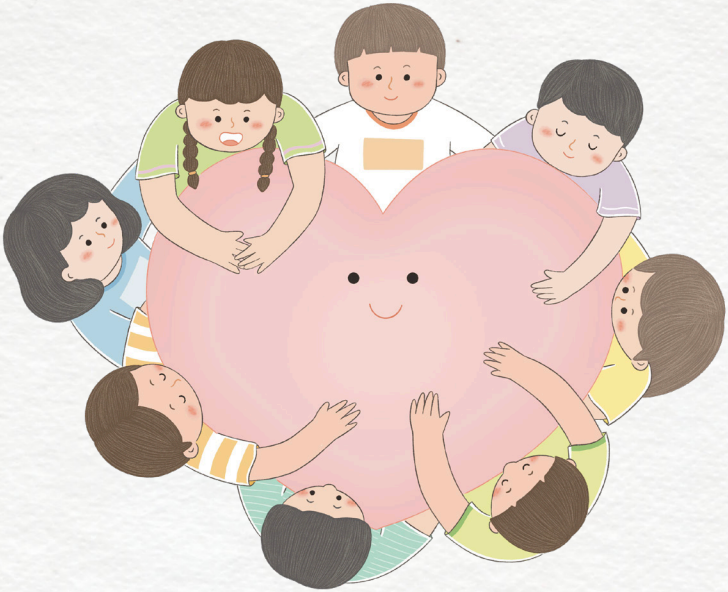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24-313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교육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장애아 및 이주배경(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보육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과 함께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0년부터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올해 '주제별 현장 사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육의 품질 향상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그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 담당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컨설팅 주요 사례를 모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사례와 가정 연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은 이 책자가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로서 집필과 사례구성에 애써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 **조용남**

Contents

1 일상 생활 반응

일과 전이 시마다 울음으로 반응해요 06
변의가 있을 때 기저귀 달라고 얘기를 해요 11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16

2 교실 내 행동 특성

활동을 제시하면 소리를 지르며 울어요 22
교실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착석 유지가 어려워요 29
교실에서 생활할 때 친구나 교사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요 33

3 감각 발달 특성

특정한 소리와 빛에 예민해요 40
특정 놀이만 좋아하고 집중해요 47

일상
생활 반응

01 일과 전이 시마다 울음으로 반응해요



민지(가명)는 5세 여아입니다. 어린이집 등원부터 울면서 등원하여 교실로 이동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 새로 입소하여 점차 등원 거부반응은 줄어들지만, 일과에서 다음 일과로 넘어갈 때마다 울음으로 반응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울기 시작하여 다음 일과를 10분 이상 진행할 때까지 계속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리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점심 식사 후 양치를 시작할 때도, 바깥놀이 후 들어올 때도 계속 우는 행동이 반복되어 교실 일과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로 설명을 해보지만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일과를 시작하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점차 울음이 줄어들고 일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동의 원인

다음 일과를 인지하지 못해서 우는 경우

다음 일과를 인지하지 못해서 우는 경우, 다음 일과로 전이하는 것이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 도전 행동을 하기도 하며, 다음 일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거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는 활동과 활동 간의 전이 시간이나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의 경우 도전 행동 빈도가 높습니다. 전이 시간은 대체로 구조화 정도가 낮고 교사가 영유아를 관찰하거나 지도하는 빈도가 적어, 영유아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유아는 입소하고 어린이집 일과를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일과 순서를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세가 되어 교실 일과가 복잡해지고 일과 전이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영유아는 일과가 전이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가 전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음 일과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원방법

영유아가 다음 일과를 모르는 경우 › 전이 계획을 세워 주세요.

ㅇ 일관된 일과 제공하기

전이 지원은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합니다. 일과가 매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전이를 힘들어하는 영유아도 점차 일과에 적응하면서 거부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실 내에서 지원하는 교사가 서로 상의하여 매일 일과를 결정하고 정해진 동일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점심을 먹고-놀이를 하는 등 일과 전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는 경우 사진, 영상을 미리 준비하여 영유아에게 설명하면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02 시각적 일과표 사용하기

하루 일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정표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각적 일과표는 벽에 부착할 수도 있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고리를 끼워 넘기는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일과는 그림이나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사진과 일과를 함께 설명해 줍니다. 예시 자료와 같이 만들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당에 가자", "교실에 가자" 등으로 다음 일과 사진을 보여주고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과의 순서를 정할 때는 '먼저-다음'판을 만들어 해야 하는 일과를 '먼저'란에, 선호하는 일과를 '다음'란에 계획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정리를 하면 다음에 바깥놀이 나가자."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먼저-다음' 판을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일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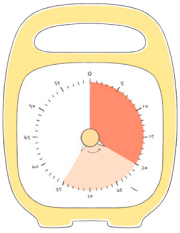


먼저-다음 카드



카드형 일과표

03 준비시간 제공 하기



비주얼타이머

비주얼 타이머를 사용하여 영유아가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자유놀이, 바깥놀이 등 영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 놀이를 멈추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주얼 타이머를 사용하여 미리 놀이 시간을 안내하고, 활동이 5분 정도 남았을 때 “5분 후 정리”라고 정리 시간을 미리 안내하고 삐 소리가 나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이를 할 때 반복적인 노래를 틀어주거나 소리 신호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팁

- 일과 전이를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매일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전이하는 것 자체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유아가 교실과 다른 활동 공간(점심식사 공간, 강당, 특별활동실 등)간에 이동할 때 겪는 활동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교실과 다른 장소 간 이동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깥놀이 후 손을 씻고 바로 식사시간을 갖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이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깥놀이 후 교실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영유아가 점심식사를 좋아한다면, 바깥놀이 뒤에 점심시간을 배치해 전이 거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유아가 싫어하는 특별활동 수업이나 착석을 요구하는 일과가 이어지면 거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이를 어려워하는 활동 뒤에는 영유아가 선호하는 활동을 배치해 전이 거부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이 시에는 영유아들이 한 번에 움직이면 감각자극이 크게 발생합니다. 감각자극을 싫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전이시간을 안내하면 감각자극이 발생할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이시간이 되면 영유아가 또래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지 않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유아가 또래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감각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에 작은 텐트를 준비해 주시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해당 영유아와 같이 영유아의 경우 교실 내에서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공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정연계 팁

전이를 어려워하는 영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일관된 하루 생활이 없고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일관되게 정하고 이를 어린이집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가 일과를 정하기 어려워한다면, 어린이집과 상의하여 영유아가 어려워하는 일과와 선호하는 일과를 번갈아가며 일상생활 루틴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형 일과표를 제작했다면, 가정에도 이를 제공하여 등원 전 영유아와 함께 하루 일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육자가 시각적 일과표를 활용해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참고문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2013).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 국립서울병원
양명희(2023). 행동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학지사

일상
생활 반응

02 변의가 있을 때 기저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준택(가명)이는 6세 남아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모두 기저귀에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자고 하면 가지 않으려 도망가거나 주저 앉습니다. 가정에서는 유아가 기저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저귀를 채워주면 기저귀에 대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기저귀 줘"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변의를 느끼고 있고,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행동의 원인

1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감각적으로 예민하다고 알려진 자폐스펙트럼이 아니더라도 청각적으로 예민함을 가진 유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기 물 내림 시 보이는 물 소용돌이를 좋아하는 유아도 있지만, 이 시각 자극이 매우 두렵게 느껴지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적 예민함 혹은 배변훈련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부족한 경우

감각적인 문제가 없다면, 많은 경우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아야 한다는 상황적 이해 및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시기부터 기저귀에 배변을 해 왔기에 이 과정에 익숙해져 '화장실'이라는 장소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동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겠지요. 이러한 경우 페어링+ 절차를 추천합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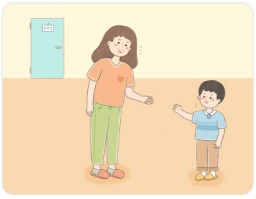
페어링(Pairing)이란? 사람, 사물, 환경도 강화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강화물을 활용하는 절차로, 혐오 혹은 비선호 자극이 좋아하는 자극과 결합(페어링)되면서 혐오 혹은 비선호 자극이 선호자극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이유도 이 페어링 절차에 기반합니다. 이미지가 좋은,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음료를 마시는 장면은 '인기 연예인=먹을 만한 또는 먹어보고 싶은 맛있는 음료'의 연상이 떠오르게 합니다. 즉 연예인과 음료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함께 제시됨으로써 서로 간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관련 자극으로 떠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 역시, 선호하는 자극과 함께 결합되면서 선호하는 자극에서 연상되는 정서적 반응이 함께 연상되게 하는 절차가 됩니다.

지원방법

화장실과 강화자극의 페어링을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은 즐겁고, 좋은 일이라는 정서적 동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두려운 상황을 즐거운 자극(강화)과 결합함으로써 화장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즉, 화장실 또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동이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자극의 페어링 절차를 시도해 보세요.

페어링 절차 예시



① "화장실 가자" 말하고
선호물 (예: 젤리, 장난감 등) 제공



② "화장실 가자" 말하고
화장실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한
뒤 선호물 제공



③ "화장실 가자" 말하고
화장실 문 앞에서 선호물 제공



④ "화장실 가자" 말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선호물 제공



⑤ "화장실 가자"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은 후 선호물 제공



전문가 팁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고 이에 대한 큰 칭찬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평소에 페어링 절차를 통해 화장실과 친해지는 것이 선행된 뒤에는 화장실에 가서 진짜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행동이 강화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의 대소변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소변을 예로 든다면, 소변을 보는 주기를 확인합니다. 적어도 3일간 유아가 마신 음료의 양, 꼭 음료가 아니더라도 식사할 때 먹은 국물, 채소류 등의 영향도 받으므로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소변을 보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주기가 확인되면 주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좋은 타이밍을 찾아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유아가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소변을 채우는 역할을 해 줍니다). 물을 먹지 않으려 한다면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음료를 제공하여 요의를 느낄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소변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을 때 화장실에 가는 시도를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 화장실 환경 점검(예: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 등으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시각적 지원(예: 변기에 배변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소변기에 서는 곳 발자국 붙이기 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화자극의 페어링 절차 이후에는 '강화로부터의 소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거란 제공되어오던 강화자극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강화자극 없이도 이미 형성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본 이후 매번 강화를 받던 것에서 두 번에 한 번 강화를 받는다거나(고정비율 강화), 두 번째 시도에 한 번 강화, 여섯 번째 시도에 한 번 강화를 함으로서(변동비율 강화) 평균적으로는 세 번에 한 번 강화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스케줄+', '고정비율강화', '변동비율강화' 등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강화스케줄(Reinforcement Schedules) : 목표 행동에 대한 강화제를 제공할 빈도와 시기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연속 강화(Continuous Reinforcement)와 간헐 강화(Intermittent Reinforcemen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 강화는 목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 대소변을 본 이후 매번 강화를 제공했다면 연속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속 강화는 주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초기단계에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며, 형성된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간헐 강화를 사용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대소변을 보는 행동이 다섯 번 발생했을 때 강화를 받는다거나(고정비율 강화, Fixed-Ratio Schedule) 두 번째 시도에 한 번 강화, 여섯 번째 시도에 한 번 강화를 함으로써(변동비율 강화, Variable-Ratio Schedule) 평균적으로는 세 번에 한 번 강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간헐 강화는 목표 행동의 발생마다 강화를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행동 중 일부만 강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생된 행동 중 선택된 행동만이 강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 조건에 의한 고정간격강화(Fixed-Interval)와 변동간격강화(Variable-Interval)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연계 팁

대소변 훈련은 어린이집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아가 마시는 물의 양, 소변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 그리고 영유아가 화장실에 가는 주기를 가정에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제가 있다면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없다면 부모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아이를 안아주거나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해 줌으로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제공되는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강화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한상민(2021). 우리아이 언어발달 ABA치료 프로그램, 예담아카이브

일상
생활 반응

03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윤지(가명)는 5세 여아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밥 먹기를 거부합니다. 교사가 식판에 배식을 하면 식판 근처에 와서 힐끔 쳐다보기도 하지만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석을 거부하고, 돌아다녀 식사시간임을 알리고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잘 먹지 않습니다. 수차례 달래어 착석을 시키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여주려 하면 얼굴을 돌리고 숟가락을 밀어내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 주면 뱉어내 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다시 빠져나가려 합니다. 빵이나 떡은 먹는 편이라 가정에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에 다른 유아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행동의 원인

구강감각이 예민한 경우

밥은 먹지 않지만, 떡과 빵을 먹는 유아의 경우, 떡이 대부분 쌀로 만들어지므로 쌀 자체의 맛, 향 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질감, 크기, 외형과 같은 감각적 요인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정한 질감의 음식에 대해 회피하는 반응은 '구강방어(Oral Defensiveness)'일 수 있습니다. 구강방어는 냄새, 맛, 촉각에 대한 과민한 감각의 결합으로, 구강촉각의 민감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촉각이 과민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감각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아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반응은 유아에 따라 다르며, 거친 질감을 싫어하는 유아가 있는 반면에 뭉글거리는 질감을 싫어하는 유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역치란? 생물이 외부에서 받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변화나 자극에 반응하려면 그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아주 작으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리 크기여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 크기를 '역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치가 낮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고, 역치가 높다는 것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팁

섭식과 관련된 문제는 생후 첫 1~3년 사이에 영유아의 약 25%에서 의학적, 발달적, 행동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흔히 발생되는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들에게서는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중증 발달장애 유아의 경우 무려 80%

에서 섭식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섭식문제는 영유아기나 아동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상당수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으며, 국내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어 이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는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식 및 음식섭취 거부가 심해 심각한 영양결핍이 걱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한 영역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당 음식의 영양소를 대체할 만한 식품군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방법

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식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과 중 하나이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섭식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응용행동분석을 통한 중재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방법과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의 동시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1 할머니의 법칙(프리맥 원리)을 사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강화(적절한 행동에 대한 보상) 절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 해당 유아에게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행동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좋아하는 음식을 보상으로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새로운 음식은 아주 조금 주고 이를 시도하면, 보상 음식은 아주 많이 제공하여 유아가 보상을 위해 밥 등의 거부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으로 '프리맥 원리'(비공식적으로는 '할머니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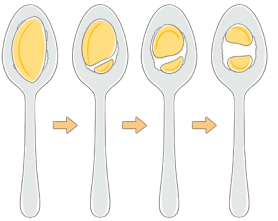
참고

프리맥 원리(Premack Principle)란? 프리맥(D. Premack, 1965)에 의해 제안된 강화의 원리로,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행동을 다른 행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말해, 빈도가 높은 행동을 빈도가 낮은 행동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TV 보기를 자주 하고 숙제는 잘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숙제를 끝내면 TV를 볼 수 있게 해 줄게"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TV 보기(상대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를 강화해서 숙제(상대적으로 덜 하는 행동)를 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리맥 원리는 자주 하는 행동을 보상으로 제공하여, 덜 자주 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2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동시 제시해 보세요

이 방법은 이미 잘 먹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의 비율을 달리하여 섞어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미 잘 먹는 빵이나 떡의 비율을 97% 이상 주고, 싫어하는 음식을 3% 이하로 하여 섞어 제시하고, 유아의 먹는 행동이 증가하면 점차로 싫어하는 음식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강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 정말 적은 양이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아주 소량의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 먹기 시작했을 때 너무 급격하게 싫어하는 음식의 양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동시제시 방법이란? 선호 음식과 비선호 음식이 서로 보완되거나 비선호 음식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

3 음식과 강화자극의 페어링 및 체계적 둔감화 과정을 활용해 보세요.

앞서 소개된 페어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관련된 놀이나 요리활동을 제공하거나, 식사 시 사용하는 용품(예: 좋아하는 식사도구 활용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정서의 페어링과 더불어 싫어하던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체계적 둔감화' 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일과 중 식사지도는 중요한 자조활동 중 하나로 전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한 거부와 이를 바꾸려는 교사의 노력은 때로 유아가 울음, 짜증, 소리지름 심지어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양을 가진 음식들이 다양해졌고, 영양학적 문제로 성장발달이 심각하게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의 일과에서 유아가 힘들어하는 도전적 과제들을 반복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먹는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 방법이나 싫어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의 동시제시 방법 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유아가 배가 고픈 상태여야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도한다면 싫어하는 음식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섭식지도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리고 이를 부모님이 원하고 계신다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리고 오전 간식시간에 유아가 먹는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연계 팁

쌀에 대한 친밀도를 향상시킬 만한 오감프로그램을 함께 해 주시면 좋습니다. 유아가 좋아하는 음식에 싫어하는 음식을 활용한 촉감놀이, 미술활동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꼭 입으로 먹는 것을 먼저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밥알 상태의 쌀을 먹지 않지만 떡과 빵은 좋아하므로 떡이나 빵에 밥풀을 하나 붙이기, 클레이처럼 뭉치기 등 유아가 좋아하는 감각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정경미, 신나영 외(2017). 응용행동동분석(상), 시그마프레스
양소정, 정경미(2007). 부모교육을 통한 섭식장애 아동의 행동치료,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류성운(2019). 구강방어가 있는 섭식장애아동의 감각처리 평가와 중재방법에 대한 고찰, 대한연하재활학회. 2(1).

교실 내
행동 특성

01

활동을 제시하면 소리를 지르며 울어요



로아(가명)는 6세 여아로 말로 표현하는 발화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조기술 발달도 느리고 특히 소근육 협응이 원활하지 않아 소근육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조작활동을 제시하면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져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던 놀잇감을 정리하고 산책을 가자고 말하면 울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지르며 울었는데 요즘엔 머리를 때리며 자해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동의 원인

1 제시되는 활동이 영유아가 하기 어렵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영유아가 제시되는 활동을 어려워하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자리 이탈하기, 울기, 소리 지르기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 영유아처럼 무발화(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 어려움)로 인해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활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활동에 영유아가 싫어하는 감각적 자극이 있는지, 활동 난이도가 영유아에게 지나치게 어려운지, 영유아가 선호하는 활동과 달라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 영유아의 관점에서 다양한 원인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2 영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더 하고 싶을 경우

영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더 하고 싶으나, 이를 요구하는 행동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도전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하고 있던 놀이를 정리하고 산책을 나가거나 바깥놀이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놀이가 더 재미있다고 느낄 경우 나가기 싫다는 표현으로 울거나 놀잇감을 던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언어적 표현이 미숙해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행동을 통해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를 더 하고 싶다면 '더' 또는 "더 할래요"라고 간단히 말하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놀이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그림 카드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1 영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해주세요.

무발화 영유아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울음, 표정 또는 소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단순한 울음과 소리 표현 외에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초기 3년간의 경험이 이후 뇌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사소통 지원방법으로 의사소통 수단의로써의 한 방법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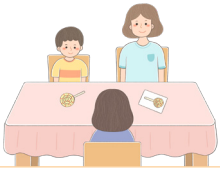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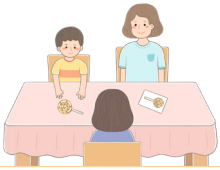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AAC)이란?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 보완해 주고 대체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도,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진 또는 글씨, 제스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어 및 의사소통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또래나 교사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 실패로 인해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의사소통판을 활용하여 그림을 지적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이때 소통은 단순히 표현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주고받기(turn-taking), 즉 교환의 개념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림을 지적하거나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을 대신하거나 발성을 동반하는 '주고받기 수단'으로서 사진이나 그림을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PECS)가 있습니다. PECS는 특별한 도구 없이 실제

사물이나 실물 사진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 기관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체계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발화 영유아나 의사소통 의도가 낮은 영유아의 경우 1단계인 '교환 개념 지도하기'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성인(영유아 맞은편에 앉은 의사소통 대상자 1명, 영유아 옆에 앉은 촉진자 1명) 2명이 마주 보고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 1단계 적용 예시

PECS 1단계	적용 예시
① 영유아가 좋아하고 원하는 사물(사전에 이미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것 영유아가 선호하는 것으로 준비)을 영유아의 앞에 내려놓는다.	 영유아가 좋아하는 사탕과 사탕 그림을 영유아의 앞에 놓는다. (그림카드는 실물 사진자료로 제시하기)
② 영유아가 책상 위 선호하는 사물을 잡으려고 한다.	 영유아가 좋아하는 사탕과 사탕 그림카드를 영유아의 앞에 놓는다.
③ 촉진자는 영유아가 사물을 잡기 전 영유아 손에 그림카드를 쥐어 준다.	 영유아가 사탕으로 팔을 뻗는다.

PECS 1단계	적용 예시
④ 촉진자는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촉구하면서 해당 그림카드를 맞은편 교사에게 주도록 한다.	 촉진자가 영유아의 손에 사탕 그림카드를 올려 놓는다.
⑤ 영유아가 그림카드를 교환하면 교사는 말로 대답하면서 그림에 해당하는 사물을 보상으로 건네준다.	 촉진자의 신체적 도움으로 영유아가 교사에게 그림카드를 주도록 한다.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 1단계를 충분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기본적인 욕구 표현 외에 그림 교환 개념을 익히지 못했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방식으로 상징과 상황 또는 상징과 사물을 함께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바깥놀이를 나갈 때마다 교실 문에 바깥놀이터 사진을 붙이고 나서 바깥놀이를 시작하거나, 바깥놀이 후 물을 마시기 직전 컵의 사진이나 실제 컵을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그림카드를 상징판에 붙인 후 물을 마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유아가 반복적이고 일관된 소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❷ 영유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이 느린 영역을 지원해 주세요.

영유아가 교사의 제시 과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비해 과제 난이도가 높아 수행하기 어렵거나, 흥미와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어려워하는 발달 영역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유아의 경우는 소근육 발달이 느린 발달 영역으로 확인되므로 소근육 협응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 유아가 좋아하는 요소를 활용하여 소근육 발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뽀로로 캐릭터를 좋아하는 경우라면 뽀로로가 있는 꼭지 퍼즐을, 파란색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파란색 블록 끼우기 활동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소근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대안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의사소통의도가 높지 않으면 영유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Enhanced Milieu Teaching: EMT)'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영유아의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조절하여 의사소통 의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입니다. 즉,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제공하여 의사소통 기회를 의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관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물리적인 상황 제공의 예로는 영유아가 흥미로워하는 자료를 교실에 비치하기,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예: 교사가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 있음)에 영유아가 선호하는 사물 두기, 도움 필요하거나 불충분한 자료 제공하기 등이 있습니다.



가정연계 팁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의사소통 행동과 수단에 따라 일관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가정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양치하기, 밥 먹기, 씻기, 옷 입고 벗기 등 일상 내 반복되는 상황을 정해서 영유아와 해당 상징(사진)을 가리키거나 떼거나 붙이기 등 영유아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하기 전 칫솔 그림을 상징판에 붙이고 양치를 하거나, 옷 갈아입기 전 옷 그림을 가리킨 후 옷을 갈아입습니다.

교실 내
행동 특성

2.



참고문헌 국립특수교육원(2016), 장애영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제 2권
이현정 외(2022), 영영유아 교사를 위한 언어발달장애, 동문사

교실 내
행동 특성

교실에서 계속 뛰어다니고 착석유지가 어려워요

02



이환(가명)이는 5세 남아입니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뛰어다니거나 교구장 난간이나 의자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뛰어다닐 때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뛰어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에 부딪혀 몸에 멍이 들 때도 많습니다. 특히 또래들과 함께 책상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가 어렵고 교사가 영유아 옆에서 지원해 주어도 착석하여 활동을 유지하는 시간이 2분 미만입니다. 외부활동이 있는 날은 더 뛰어다니고 교사의 지시도 반응하지 않아 체험학습 하는 날에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합니다. 활동성이 높은 유아라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라고 바깥 놀이 시간을 다른 유아에 비해 더 제공하였더니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뛰어다니고 정적인 활동에 전혀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실 내 행동 특성 2.

행동의 원인

움직임을 놀이로 선호하는 경우

행동의 원인이 놀이(감각자극 추구)인 경우, 특별하게 교사나 또래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반복하며 뛰거나 점프하는 행동을 통해 영유아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은 신체 내부 감각으로 고유수용감각[+]과 전정감각[+]이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여러 동작 및 활동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신체 위치와 힘을 쓰는 방법,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세 조절 능력이나 착석 자세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쉽게 흥분하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영유아는 고유수용감각 놀이를 통해 각성 조절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전정감각 활동을 통해 몸의 자세 조절을 익히며 움직임이 많고 빠른 활동에도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수용감각과 전정감각에 대한 처리가 좋아지면 균형이 불안하던 영유아도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려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움직임을 놀이로 선호하며 자극을 추구하는 영유아의 경우 움직임과 관련된 특징들을 파악하고 놀이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유수용감각과 전정감각을 선호하는 영유아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제자리에서 점프하기, 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 걸을 때 발바닥 전체를 쿵쿵거리며 걷습니다.
- 일부러 벽이나 난간을 손이나 막대로 치고 싶어 합니다.
- 운동화의 끈, 벨트 등을 꽉 매는 것을 좋아합니다.
- 온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 가방끈, 소매 끝, 긴 줄, 딱딱한 간식 씹는 것을 좋아합니다.
- 어디에서든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 놀이공원에 가면 속도가 빠르거나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좋아하며 계속 타고 싶어 합니다.
- 트램펄린을 매우 좋아합니다.
- 놀이터에서 그네를 오랫동안 높이, 빠르게 타고 싶어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참고

- **고유수용감각이란?** 근육이나 관절을 통해 들어온 감각자극으로 내 몸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감각으로 머리와 팔다리의 움직임, 위치에 관한 감각을 스스로 해석하는 감각입니다.
- **전정감각이란?** 머리의 위치에 따라 느껴지는 감각으로 몸의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감각입니다.

지원방법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 놀이를 제공해 주세요.

가방 메고 움직이기



라텍스 밴드를 활용한 놀이



움직임과 관련된 감각으로 고유수용감각과 전정감각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무거운 가방을 메고 활동하기가 도움이 됩니다(적용 전 양육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5세를 기준으로 그림책 5~7권 정도가 적절하며 활동량에 따라 무게를 조절해 줍니다. 무게감이 있는 가방을 메고 움직이면 어깨와 같은 큰 관절에 고유수용성감각을 입력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힘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라텍스 밴드를 이용하여 튼튼한 책상다리나 기둥에 칭칭 감아 밴드 사이를 손으로 벌려 몸이 빠져나오는 놀이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정해주어 제한설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적인 지시보다는 시각적인 단서 제공이나 구조화된 공간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 유지가 힘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세유지를 도와줄 방법으로 짐 볼에 앉기, 스퀴즈 볼 등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팁

영유아가 움직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각적인 요구가 없는 경우라면, 신체 협응과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서툰 영유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상담 시 영유아가 대근육 등 운동성 발달면에서 느린 발달을 보였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근육의 발달이 느리게 나타난 영유아라면 신체를 움직이는 경험을 자주 제공해 주어 신체 협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움직임에 대한 방법 등 제한 설정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연계 팁

영유아가 많은 움직임에도 쉽게 지치지 않는 경우라면 각성이 높은 영유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원 후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영유아가 들떠 있는 것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경우라면 각성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각성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각성을 낮춰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신체놀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신체놀이로 각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영유아를 이불로 둘둘 감아 이불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거나, 영유아가 이불 위에 천장 쪽을 보고 누운 후, 길고 두꺼운 백업을 짚라인처럼 잡아서 몸을 백업 끝으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참고문헌 석경아, 변미선, 강은선(2021), 감각통합놀이, 소울
강윤경, 김원철(2021), 우리아이 감각운동 처방전, 블루무스

교실 내
행동 특성

03

교실에서 생활할 때 친구나 교사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요



민준(가명)이는 6세 남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유놀이 후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어 모이도록 하면 잠깐 자리에 착석하였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교사가 다가가서 친구를 때리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면 교사도 때리고 주변에 있는 놀잇감을 던지기도 합니다. 한번 공격행동이 시작되면 영유아를 진정시키기가 힘들고 다른 일과에서도 친구나 교사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때리기 시작하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공격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동의 원인

1. 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 일과를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또래 영유아들이 하는 활동의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 영유아는 책을 읽는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동이 발생하는 일과가 영유아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책 읽기나 아침 인사 나누기와 같이 착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착석' 자체가 어려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유아가 평소 놀이시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착석할 수 있는지 관찰하고, 영유아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착석하도록 활동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으로 나누어 착석 시간이 짧은 또래와 함께 착석하는 시간을 맞추고, 점차 착석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일과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공격행동의 목적이 관심 끌기인 경우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게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영유아가 또래에게 공격 행동을 보였을 때 교사가 말을 걸어주거나 스킨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오히려 영유아가 원하는 관심을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격 행동의 목적이 관심 끌기임을 기능적으로 파악했다면, 공격 행동에 대해서는 가볍게 "안 돼"라고 말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되 감정적으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영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교사가 즉시 칭찬(관심)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가 정리를 잘하거나 일과를 잘 수행하는 순간에 적절한 관심을 주면, 공격 행동을 통해 관심을 끄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사는 영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요구하고 싶으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영유아가 일과 중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종종 특정 일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영유아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분석하여 어떤 일과에서 이러한 행동이 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중 물을 마시고 싶거나, 식사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얻기 위해 공격행동이 관찰된다면, 이는 영유아가 원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 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카드를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가 올바르게 요구를 표현했을 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유아는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유아의 공격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방법

1 영유아의 공격행동을 관찰 기록해주세요.

- 영유아의 행동빈도 체크하기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2024). 장애아보육 놀이 지원의 실제. p32 〈그림2-4〉 빈도기록 예시 참고

빈도기록지			
유 아 명	조○○	생년월일	20○○. 08. 02.
관 찰 자	김△△	관 찰 일	20○○. 05. 11.
관찰장면	자유놀이	관찰시간	10:00-11:00
관찰행동	놀이 중 놀잇감 던지기		

시간	활동	행동 발생	발생 횟수
10:05-10:15	자석(글자 모양)	////	4
10:15-10:22	점토	-	0
10:22-10:36	공룡 인형	/	1
10:36-10:53	퍼즐 조각	///	3
10:53-10:59	역할놀이 숟가락	//	2
요약	총 행동 발생 빈도: 10회		

공격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가 '언제' 공격행동이 발생하는지와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의 일과가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행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일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일과가 영유아에게 어려워서 발생하는 것인지, 교사나 또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요구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 요구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등의 공격행동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공격행동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2 영유아의 행동에 맞게 강화해주세요.

• 도전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에 적절한 강화[+] 제공하기

하루 일과가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 영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교사의 칭찬이나 스킨십, 눈빛 등 긍정적인 강화가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영유아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영유아를 안아준다거나 영유아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잠깐 분리해 주는 등 강화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유아는 관심을 끌기 위해 공격행동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도전행동과 긍정행동을 파악하고 교사가 도전행동과 긍정행동에 어떤 반응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방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

강화란? 어떤 행동 후에 즉시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함에 따라 그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Sulzer-Azaroff& Mayer, 1986, 재인용).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후 다른 친구가 흘린 반찬을 닦아주는 모습을 교사가 보고 "우리 OO가 다른 친구가 흘린 반찬까지 정리해줬구나."하고 칭찬을 한다면 OO는 더 자주 친구들이 흘린 반찬을 닦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3 규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 우리 반이 함께 지키는 규칙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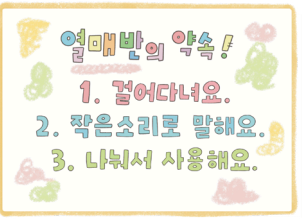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후, 영유아 중심의 놀이지원이 실행되면서 교실에서 규칙을 정하거나 일과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더욱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영유아에게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때리지 않는다'는 규칙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영유아와 함께 의논하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실 내 행동 특성 2.

이렇게 결정된 규칙은 교실 내 규칙판에 게시하여 모두가 함께 지키기 위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영유아가 서로 존중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가 팁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 교사는 영유아가 공격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 영유아에게 반복적으로 놀잇감을 빼앗기고 있는데 언어 표현이 서툴러 공격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행동의 빈도가 높은 경우 영유아 공격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영유아 공격행동에 교사가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교사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공격성을 통제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와 같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은 영유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등의 단호하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연계 팁

공격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가정에서 모습을 확인하다 보면, 부모가 영유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에게 애정과 통제는 균형감 있게 제공되어야 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실에서 교사가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과 그 시기에 적절한 훈육 및 상호작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안내문과 상담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2013).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 국립서울병원
양명희(2023). 행동수정이론에 기초한 행동지원, 학지사
김의연(2019). 행동수정심리솔루션 12가지

감각
발달 특성

01

특정한 소리와 빛에 예민해요



현진(가명)이는 6세 남아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좋고 싫음의 의사표현은 비교적 명확하게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한 빛과 소리에 감각적으로 예민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과(영화관, 극장, 원내 빛과 그림자놀이 등) 특정 소리(공사소리, 방역차량 소리 등), 새로운 장소와 처음 접하는 활동에는 울음과 소리 지르기로 강하게 표현합니다. 불안함을 느끼면 이후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소리에 대해 불안하고 싫었던 기억을 오래 기억하여 등원하기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행동의 원인

감각자극 회피(선호하지 않는 감각으로부터 회피하기)

청력에 의해서 들은 정보는 청지각 기술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데 청지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보기 싫은 것이나 만지기 싫은 것은 멀리서 보고 피할 수 있지만 갑자기 나는 소리는 보통 듣고 나서 피하게 됩니다. 사례 유아의 경우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때문에 놀라고 불안하여 감각자극(소리)으로부터 회피하고자 울음과 소리 지르기 등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들에게는 대안적 방법(전략)들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원방법

1 새로운 경험을 하기 전 미리 정보를 알려주세요.

새로운 장소, 활동을 하기 전 사전 정보를 알려줍니다. 비슷한 놀이를 설명해 주고 몇 명의 영유아가 오는지 아는 친구가 있다면 이름을 알려줍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활동이라면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제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다고 함께 알려줍니다.

사례의 예〉 인형극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충분히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① 어둡고 큰 소리가 나는 인형극장에 천천히 적응하기
② 공간과 소리에 익숙해지고 인형극 이야기에 적응하며 자리에 착석하기
③ 인형극 활동에 참여하기(공연장)

2 문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헤드폰을 쓰게 해줍니다. 헤드폰은 이왕이면 크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가 실제로 헤드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헤드폰의 존재 자체가 영유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 가게 된다면 출구 위치를 알려주고 영유아가 나가고 싶어 할 경우,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영유아는 청지각[+] 자극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지각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귀를 통해 들은 청각 정보를 주변의 환경과 지속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감각을 말함

장애유아가 다음과 같이 소리에 예민하다면 청지각 놀이가 필요합니다.

- 갑자기 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 공사장 소리나 자동차 경적에 예민하다.
- 지하 주차장이나 극장처럼 소리가 울리는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 시끄러운 곳에 가면 쉽게 피곤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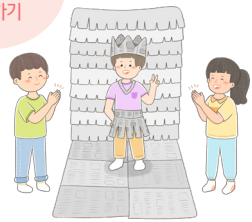
3 감각 반응(빛, 소리)을 고려한 놀이 공간을 구성해 주세요.

가정이나 교실에서 놀이 중 예측하지 못한 소리에 긴장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바닥에 매트(소리 완충)를 제공하여 줍니다. 즉, 소리에 대한 예측 가능한 놀이공간을 구성함과 동시에 놀이 텐트(원목, 천 텐트 등), 또래와 함께하는 패션쇼장, 영화관, 인형극장 등의 역할놀이를 하면서 긴장감보다는 자연스럽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원목텐트, 매트 등으로 편안한 공간마련해주기



또래와 음악이 있는 역할놀이 참여하기



또한 밝기 조절 가능한 조명, 라이트 볼, 라이트테이블 등을 제공하여(교실 공간, 텐트 공간 등) 어두움과 밝음에 대한 차이를 유아가 스스로 조절해 보면서 불안도를 낮추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영유아들은 성장하면서 감각을 통합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혹은 경험적으로 익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들은 특정 감각에 유독 예민하거나 특정 감각을 지나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때론 감각통합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영유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강하게 훈육하거나 특정 문제행동을 반복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행동과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이유를 판단한다면 행동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간과 놀이 자료의 제공이 때로는 장애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과한 자극이 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청지각 활동을 통해 장애영유아가 다양한 소리를 스스로 내보고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지각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는 악기놀이, 빈 병 연주하기, 또래와 함께하는 둥글게 둥글게, 종이컵 쌓기 등의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연계 팁

원에서 활동하기 전 사전경험을 가정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원에서 활동 후 가정에서 사후 활동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장애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및 놀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변화를 주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과 어린이집이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대안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0). 4차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장애영유아 놀이 지원교육
석경아, 변미선, 강은선(2024). 감각통합놀이, 소울하우스
이소현, 박은혜(2019).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감각
발달 특성

특정 놀이만 좋아하고 집중해요 02



영민(가명)이는 5세 남아입니다. 반향어 및 의미 없는 의성어를 사용하며 함께 놀기보다는 자동차를 손에 들고 교실을 배회하거나 혼자 놀이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여 자동차 관련 놀이와 그림을 그리는데 특히 소방차, 경찰차 등 차 종류를 그리고 다른 놀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모래에 그림 그리며 놀이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등원 및 하원 거부는 물론 실외활동 시 모래 놀이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거부하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모래 그림 그리기에 집착합니다.

감각 발달 특성 3

행동의 원인

자신만의 놀이 즐기기

자폐성 장애영유아의 놀이는 대체로 사회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놀잇감을 비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사례 유아의 놀이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거나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고집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나름의 목적성을 가지고 반복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유아가 현재 선호하는 공간과 놀잇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놀이에 관심 유도 및 또래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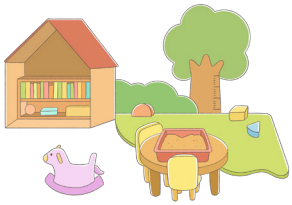
지원방법

1 장애영유아의 선호도를 반영한 감각탐색 놀이 공간을 구성하여 놀이 참여를 지원해 주세요.

장애영유아 중에는 특정 놀잇감이나 놀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나 놀잇감과 놀이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애영유아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놀잇감과 놀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영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례 유아의 경우 자동차 놀잇감과 그림그리기 특히, 모래놀이를 특별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과 현상은 무엇인지를 관찰,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교실 내 또는 교실에 모래놀이 공간을 구성하기 어려울 때는 공유 공간(유희실, 복도 등)에 모래놀이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실 내 감각탐색 활동 공간 구성하기(예)





선호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예)

활동/품목/사람	제시에 대한 반응	제거에 대한 반응
모래놀이 활동	집중하여 그림그리기	소리내어 울며 화를 냄
종이에 색칠하기	자동차 그리기	반응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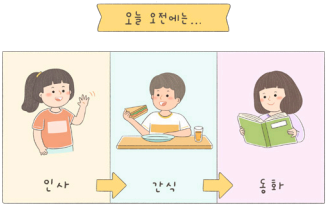
2 장애영유아의 선호도를 반영한 활동 시간, 순서 등의 변화로 놀이 참여를 지원해 주세요.

자폐성 장애영유아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행동이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의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사례의 유아처럼 특정 놀이 및 놀잇감이나 활동에 집착하여 다른 것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아의 선호하는 놀이의 시간, 횟수, 방법들을 확장하거나 순서에 변화를 주는 등 비선호하는 놀이의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감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참여행동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유아의 경우 모래놀이에 대한 놀이 욕구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모래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모래놀이의 활동 시간, 활동 방법,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등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① 선호하는 활동(모래놀이) 시간 30분 → ② 비선호하는 활동(과제 등) 시간 5분 → ③ 선호하는 활동(모래놀이) 시간 20분 〉 반복하여 기간 지속한 이후 관찰, 평가하여 시간과 강도, 횟수를 ① 20분(15분), ② 10분(12분), ③ 20분(15분) 등으로 조절하여 유아가 점진적으로 변화에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 계획 : 시간, 강도, 횟수 등을 정하여 적용 → 이후 변화 주기)

전문가 팁





장애영유아가 다양한 발달영역을 경험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참여행동기술을 높이기 위해 교사는 새로운 놀잇감을 준비하기도 하고 놀이공간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장애영유아가 놀이에 대한 요구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관심과 흥미, 선호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놀이 환경과 놀잇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유아의 경우처럼 특별한 놀이만을 선호할 때 교사는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만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다른 놀이에도 관심을 갖도록 선호하는 놀이를 제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이미 영유아의 선호도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또한 선호하는 놀이로 인해 행동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유연함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연계 팁

가정에서도 장애영유아가 편안하게 자신의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고 영유아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학기 초가 아니더라도 가정방문(가정동의)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린이집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이기에 일관성 있는 일과(놀이와 정리 등)나 약속을 잘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놀이 및 일과 계획표 등을 지원하면 장애영유아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이영, 김지영, 김태강, 김현정, 성연승, 정순주, 정종화(2020). 특수교육학개론, 양성원
보건복지부(2024). 교사용 장애아보육 놀이 지원의 실제. 한국보육진흥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0). 4차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장애 영유아 놀이 지원교육
이소현, 박은혜(2019).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감각 발달 특성 3

자폐성 장애영유아의 놀이 관찰 시 고려할 점

질문	놀이 관찰 시 고려할 점
놀잇감이나 사물을 좋아하는가?	– 놀잇감이나 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 놀잇감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응시만 하는가?
반복하는 놀이는 무엇인가?	– 그 놀이를 반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놀이하는가? – 그 놀이는 한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 그 놀이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가?
어떤 놀잇감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가?	– 선호하는 것은 색깔인가, 크기인가? 그 외의 무엇인가? – 어떤 느낌의 재질을 선호하는가? – 교사가 새로운 놀잇감이나 새로운 물건을 소개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건이나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그 물건이나 놀잇감으로 무엇을 하는가?	–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하는가? – 다른 또래와 함께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가? – 놀잇감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노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한 움직임만을 반복하는가?
물건을 수집하는가? 아니면 놀이를 할 때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가?	– 새로운 것을 소개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옆에 두고 있는가?
만약 상상 놀이를 한다면, 좋아하는 주제가 있는가?	– 상상 놀이를 할 때마다 동일한 주제로 놀이를 하는가? (의사놀이, 소방관 놀이 등) – 새로운 놀이를 위해 주제를 정하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가? 누구와 함께 노는가?	– 누구와 가장 많이 놀이하는가? – 또래와 노는가? 아니면 성인과만 노는가? – 교사가 다른 또래와 함께 놀이할 것을 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집필

심소라 베품양육코칭센터(대표)
이영애 국공립금강어린이집(원장)
이현주 이룸언어심리발달연구소(소장)
제민희 마음뜰언어심리상담센터(센터장)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2024년 12월 인쇄

발 행 인 | 한국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 한국보육진흥원
주　　소 | 서울시 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　　화 | 02) 6901-0100
홈페이지 | https://www.kcpi.or.kr
인 쇄 처 | 하늘디자인 02) 446-9590
I S B N | 978-89-98842-91-8

※ 본 책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KCPI 한국보육진흥원
비매품/무료
08500
ISBN 978-89-98842-91-8